

올 겨울 춥다는데...연탄 기부 열기 식었다

'지난해 11월 1만장' 광주·전남 연탄은행 올해 한 장도 없애고 고물가·경기불황에 후원 '뚝'...연탄 쿠폰으로 턱없이 부족 겨울 내려면 가구당 1000여 장 필요...취약계층에 관심

입동(入冬)이 지나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있지만 광주지역 연탄기부가 감소하고 있어 혹독한 겨울을 버텨내야 하는 취약계층의 한숨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고령의 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겨울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의 취약계층에 연탄을 제공하는 전주 연탄은행에 따르면 광주·전남 연탄기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광주·전남에서 기부된 연탄은 약 10만 장이었다가 2020년 7만 장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만 장만이 기부돼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문제는 올해다. 지난해에는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연탄 약 1만 장이 기부됐지만, 올해는 14일 현재 연탄 기부건수는 0건에 현금 100만원만 기부했다는 점이다.

윤국춘 비상공동체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특히 올해 겨울은 더 춥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취약계층에게 더 아프고 독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부터 추워진 날씨에 취약계층들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마북동의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는 박태봉(71)씨는 차가운 얼음방에서 균용 내복과 두꺼운 패딩으로 버티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박씨는 어렸을 적 소아마비를 앓아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 최근 수술까지 한 아픈 다리를 하루 종일 따뜻하게 하기 위해 박씨가

필요한 연탄은 하루 8장이다.

하지만 연탄을 아끼기 위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다 오후 늦게 연탄을 때겠다는 것이 박씨의 설명이다. 그나마 지금부터라도 난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 이웃이 이사하면서 주고간 100여 장 덕분이다.

박씨는 "올해 초 이웃이 이사하면서 주고간 연탄 100장이 없었다면 지금부터 떨고 있었을 것"이라며 "연탄 기부가 확실히 줄어 올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연탄 걱정을 하는 건 박씨 뿐 아니다.

마북동의 다른 주택에서 만난 문모(여·91)씨도 연탄 걱정을 하고 있었다.

혼자 살고 있는 문씨는 아침에 연탄 2장, 저녁에 2장씩 하루에 4장을 사용한다. 날이 추워지면 하루에 6장까지도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탄을 사용할 때마다 창고의 연탄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여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씨의 하소연이다.

문씨는 정부에서 줬다는 연탄쿠폰을 만지작거리며 "그래도 날이 곧 추워진다니 오늘은 연탄업자에게 연락을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연탄은행 외에도 광주지역에서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광주시에서 연탄쿠폰을 지원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해 광주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한부모가정과 같은 소외가구 등 총 760가구에 가구당 47만 2000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제공하고,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323가구에 13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원한



광주시 서구 마북동의 한 주민이 지난 11일 저녁 날이 추워지자 연탄을 때고 있다.

다. 하지만 쿠폰만으로 겨울을 모두 나기는 힘들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하루 평균 5장 정도의 연탄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000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쿠폰으로 받을 수 있는 연탄은 600여 장에 그치기 때문이다.

연탄기부가 줄고 있는 이유는 고물가에 경제가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연탄은행 관계자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은 정부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그동안 기부와 후원으로 충당했지만, 최근에는 연탄 기부가 줄어 사비로 연탄을 사야 하는 실정이다"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연탄 후원도 뚝 끊겼고 자원봉사까지 줄었다.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는 만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오월 단체, 사적지 청소

오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 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회)가 15일 '제1회 5·18사적지 자원봉사 활동'을 개최하고 사적지 주변을 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원봉사에는 광주여성라이온스클럽, 5·18민주학교 1회 동창회,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신청한 자원봉사자 등이 동참한다.

이들은 5·18광주 사적지 제 15호 '광복간 양민 학살지'를 중심으로 사적지 청소를 할 방침이다. 내년에 조성될 예정인 '5·18 남구 오월길' 예정지를 따라 걸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오월길을 소개하고, 1980년 5월 항쟁 당시 일어난 양민학살 사건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무등산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내달 15일까지 산불 방지 위해

무등산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가 산불 방지를 위해 한달간 출입이 통제된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일부 탐방로의 출입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제 구간은 총 5개 구간(8.1km)으로 소태재-마집봉 갈림길(1km), 풍암주차장-광일목장(2.1km), 선주암 갈림길-서인봉 갈림길(0.8km), 서석대-천왕봉-군부대입구(1.1km), 광일목장 입구-선선대 갈림길(3.1km) 등이다.

이들 구간은 과거 산불이 났던 주의구간으로 특히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무안공항 국제선 16일 다시 난다

나트랑·방콕·오사카 등 6개 노선 순차적 운항 재개 편의시설 확충·개선 중...활주로 연장 사업 본격화

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오는 16일부터 동계 시즌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7월 한 달간 베트남, 태국, 몽골 5개 노선 운항이 일시 재개된 후 또다시 장기간 국제선 운항 중단을 겪은 무안공항은 검역 조치 완화 이후 지역 여행 경기 회복과 함께 다양한 전세기 여행사들의 참여로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게 됐다.

16일 퍼시픽항공의 베트남 나트랑을 시작으로 다낭(제주항공 12월 1일·뽀부항공 2023년 1월 4일), 달랏(비엠펙항공 12월 20일), 태국 방콕(제주항공 12월 3일), 일본 오사카(제주항공 12월 3일), 캄보디아 씨앤티(스카이앙코르항공 2023년 1월 21일) 등의 노선이 순차적으로 운항 재개된다.

현재 전세기 여행사의 손님 모집 상황은 나트랑 노선의 경우 2월 항공편까지 80%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16일 출발하는 첫 비행기는 185석 만석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의 다낭·방콕 노선도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3년 만에 재개되는 일본 오사카 노선은 현지 숙박을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예약률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9·10월에도 전세기를 준비했다가 예약률 저조로 운항이 무산된 적이 있어 지역 여행사에서는 기대와 함께 상황을 신중하게 바라보는 분위기이다.

국제선 운항 재개에 대비해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에서는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

관리동을 신축하고 공항 주차장도 기존 1871면에서 3009면으로 증설했다.

또 관리동 이주로 확보한 공간을 활용해 면세점 확장, 국제선 컨베이어와 국내선 탑승구 증설 등을 마무리했으며, 전체적인 여객터미널 시설 재배치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대형항공기 운항을 위한 활주로 연장사업(2800m→3160m)도 조만간 국토부의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보상 절차와 함께 내년 상반기 본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할 계획이다.

활주부가 연장되면 유럽과 미주노선 그리고 대형 화물기도 운항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노선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산 무안 군수는 "전남도, 공항 공사와 함께 국제선을 확대해 무안 공항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서 신속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미디어월에 가족 사연 남기세요

광주 남구, 청사 외벽에 12월부터 상영

광주 남구가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 간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접수받아 다음해부터 미디어 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남구는 가족간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영상으로 송출하는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이 가능한 사연은 가족 구성원에 관한 내용이어야 한다.

사연 신청은 구청 주민행복담당관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상시 모집한다.

접수된 사연은 남구청에 마련된 스튜디오와 영상 촬영 장비를 통해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된다.

미디어 월을 통해 공개하는 콘텐츠 분량은

각종 사연에 대한 이야기 구성에 따라 1인당 15초에서 3분 사이이다.

미디어 월은 남구청사 건물 외벽 정문 방향 4층과 5층 전면부에 'L'자 곡선형태로 너비 42.4m에 높이 10m의 규모로 설치되는 초대형 LED 디스플레이이다.

남구는 오는 12월 중순께 미디어 월을 완공할 예정이며 백운호랑이가 매 시각마다 등장해 시간을 알려주는 영상을 시범적으로 선보인 뒤 주민들의 사연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담을 방침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가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콘텐츠를 운영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울타리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안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

